



宗訓

- 1. 崇祖 精神의 高揚
- 2. 宗族 和睦의 勵行
-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 61 호

2009. 7. 27 (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중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 ~ 2502/FAX : (02)400-2505

金鍾植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逝去

故 鍾植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이 宿患으로 2009년 6월 21일 11시50분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서 享年 74歲로 逝去하였다.

發軔祭는 2009년 6월 23일 오전 8시 遺族과 弔客들의 오열 속에 發軔祭를 올리고 莊嚴한 運柩 行列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先靈에 도착하여 6월 23일 오전 11시 30분 嚴肅하고 敬虔하게 安葬되었다.

이번 葬禮式에 順天金門이 一絲不亂하게 團合된 모습으로 全國 各派宗會와 地域宗親會에서 弔問과 함께 보내온 弔花가 식장을 더욱 肅然하게 하였다.

특히 中央宗親會 副會長인 수연 宗親은 自費로 600만원 상당의 日刊紙 訃告廣告와 고급 캐디락 運柩車를 賃貸하여 모시므로 宗親會의 位相을 한층 드높혔다.

國會議長의 弔花를 비롯한 政界와 한화그룹을 비롯한 財界 言論界 宗教界 등 社會 各界 各層에서 弔問과 함께 보내온 弔花의 哀

悼行列이 끝이 없었으니 故人이 生前에 얼마나 큰 業績을 남겼고 功德을 쌓았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으니 遺族과 弔客들이 더욱 哀慟하였다.

고인은 용산고와 미국 램버스대학을 졸업하고 남가주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LA성서 신학대학원에서 명예 哲學 博士學位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하였다.

故人의 주요경력은 미국 남가주 총유학생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 화약(주) LA지사장과 대한공론사 코리아헤럴드 LA사장, 남가주 지방 한인회장, 미국한국어방송 사장을 거쳐 제13대 國會議員을 역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中央宗親會 會長으로 취임하여 산적한 위선사업을 준공하여 順天金門을 盤石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 장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와 인력지원은 한화그룹에서 지원하였으므로 全宗員의 이름으로 升淵 한화그룹 회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회장님의 靈前에 삼가 冥福을 빕니다.



追悼辭

會長任. 영전에 참가 아뢰옵니다. 하늘도 이렇게 무심합니까. 아~~ 우리는 어찌하여 오늘 이같은 비통스러운 고별을 장송하는 자리가 됩니까. 會長任 저희들 어찌하고 가시나이까.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원통할 따름입니다. 지나간 20여년 세월 그 많은 어려움 이겨내시고 우리 종친회와 문중을 세상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승조하는 일을 제일로 삼으시고 본회 초창기부터 오늘날 우리가 있음은 "조상님이 계셨기에"라고 하시며 우리 始祖부군의 초라했던 묘역 꾸꾸기에 힘쓰시어 오늘날과 같이 능묘에 버금가는 묘역조성과 염원했던 실전된 조상의 제단 설단도 완성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변 공사도 마무리하시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조부군의 영정을 모시고 백성들이 제향하던 성황사 사적을 복원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셨습니다. 그 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복원을 못 보시고 이렇게 가시니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종친들에게 분기마다 보내는 宗報 업무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때만 되면 독려하시어 거르는 일이 없도록 챙기시어 문중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종친간 항상 화친토록 상호 양보의 미덕을 배부셨으며 봄가을의 시조부군 향사 때는 많은 종친들이 참배토록 손수 독려와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또한 지극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靑少年 학생을 위한 교양강좌에도 빠짐없이 후세 양성 교육에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행사 때 마다 참석하셨지만 유독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시며 그 먼 천리길을 무리하시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의 피로하신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와 같은 會長任의 깊은 뜻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무언의 위훈 길이길이 빛내 오립시다. 우리 종문의 대사였던 수년전의 대동보 수보시는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습니까.

험한 가시밭 같은 길에 수많은 애로 물리치시고 초지일관하시어 우리 順天金氏의 계통

이 정연하게 올바르게 정립된 甲申대동보는 이루어져 종사의 위상을 만천하에 펼쳐 그 위함을 선양하여 못 사람에 당당한 공인을 받으셨지요.

또한 세적총람의 간행은 우리 선조님들의 훌륭한 사적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고 해남 삼상사에 삼상사적비 수비하여 그 덕행에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세분 相公님의 공훈은 우리 문인이라면 필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시며 그 어려운 형편임에도 그 분들의 實記本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작하는 사업도 추진되어 미구에 완성될 단계인데 이를 다 못 보시고 이렇듯 애석하게 가시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하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시조부군에 관하여 잘못 논의되고 있는 일을 그 얼마나 걱정하시고 계셨습니까.

會長任의 과감하신 용단으로 이 일 바로 잡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뿌리공원 조형물 설치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데 이와 같은 막중한 큰 일을 남겨둔 채 어찌하라고 가셔야 한단 말입니까. 어리석고 불민한 저희들 걱정이 태산과도 같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종친회 창립 이래 지나간 세월 연임하시어 그 어려운 세파를 이겨내시고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큰 공이거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와 같이 종사에 길이 빛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유명을 달리하신 會長任의 그 크나큰 은공 우리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슬프도다.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을 會長任 앞에 바치오니 고이 고이 잠드소서. 평화롭고 아늑한 저 세상에 가시어 편히 편히 쉬옵소서. 꼭 하느님의 명복있으소서.

2009年 6月 23日

常任副會長 相容 올림



感謝의 말씀

지난 6월 21일 부친 鍾植의 喪事로 땅이 꺼지는 슬픔과 上奉下率을 어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던 차에 弔問오셔서 따뜻한 慰勞의 말씀과 아울러 분에 넘치는 厚意로 初終葬禮를 모두 마치게 되어 感謝합니다.

驚惶網措하여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우선 紙面으로 人事드리며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2009년 6월 29일

金正淵
道淵
原必
瑞淵 再拜



회장님의 靈前に 참가
冥福을 빕니다.

중앙종친회에서 알리는 말씀

종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미 신문 지상으로는 종친 회장님의 서거를 알려 드린 바 있사오나 회장님의 별세는 우리 종친들에게 충격과 가문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중단 없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여러 종친들께서는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공적과 그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진을 다각도로 모색, 추진 중에 있사오니 불원간 좋은 결실이 맺게 될 것을 다같이 기원해 봅시다.

항간에 본회 기본 방침이나 고인의 뜻에 벗어난 방향으로 오도되는 여론이 있는 듯하나, 이에 현혹됨이 없도록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함이 없도록 추후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별 유의하시고 앞으로 본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협조 있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 7.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비상대책 위원회

輓 中央宗親會

虎巖 金鍾植 會長

稟賦清高世罕儔
天樞大德更難求
賢孫肖子將繼承
盛閱嘉風亦盡修
精一工夫仁義得
心潛聖學怨尤無
龍亡虎逝山下寂
後死何依淚自流

天稟清高하니 따를 이 없고
天樞大德하니 다시 열기 어렵도다.
賢孫肖子代이어繼承하고
盛閱嘉風 또한 모두 닦았네.
精一工夫에 仁義의 大道를 깨쳤으니
心潛聖學으로 怨尤라곤 없네.
龍은 虎逝에 온 세상 寂寂하니
뒤에게 依支할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慟哭拜輓 宗末鍾龍



文昌精氣降吾林
私淑前賢古道尋
唯義檢身行正路
以仁接物用真心
廳言盡感恩天廣
受訓恒夢德海深
花樹大枝秋遽到
晚生孰迪淚難禁

文昌星精氣받아 吾林降誕하사
聖賢을 私淑하며 古聖의 길 찾으셨네.
義로서 檢束하여 大道를 行하셨고
仁으러서 應接하사 真心을 다하셨네.
그 말씀 傾聽할제 如天大恩 切感했고
教訓을 받아오매 그恩惠바다보다 깊었습니다.
花樹大枝 會長님이 忽然히 逝去하시고
뒤라서 저희들을 指導할고 흐르는 눈물 금할 길 없습니다.

中央宗親會幹事長 族宗末金鳳煥痛哭輓

회장님의 靈前에 삼가 冥福을 빕니다.



持默齋平 襄景齋派 節書齋派 判書齋派 忠貞派 御察派 監守派 郡城派 尚使派 牧院派 柯衣派 進士派 水軍派 副護公派 萬戶公派 宗親會

大釜田忠山 仁光州宗親會 安慶宗親會 聞慶宗親會 龜尾宗親會 盤谷宗親會 順天宗親會 海山宗親會 黃山宗親會 虎陽宗親會 潭寧宗親會 天寧宗親會 保寧宗親會 高陽宗親會 利川宗親會 龍仁宗親會 原州宗親會



추모의 글



순천김분의 큰 별 고 김종식 회장님.
아직도 우리 종친들에게 당신이 해주셔야 할 일들이 곳곳에 산적한데 당신이 아니시면 이를 수 없는 것들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당신은 어찌 이리 바쁘게 떠나셨나요.

중앙종친회 창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지 못했던 종사와 종친간 화목을 위해 당신은 밤낮으로 온 몸을 던져오셨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우리 모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병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은 우리들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6년을 종친회에 몸담아 오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나눠 갖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명실상부한 대동보 편찬을 이루시면서 곳곳에 반대의 의견들이 도사려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을 7년여 긴 세월을 당신은 묵묵히

견디며 끝내 이루어내신 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적을 새롭게 정리하여 총람을 편찬하셨고 양경공, 복저공 실기는 물론 동원제 삼은 개축을 이루셨고 시조묘역 정비사업은 당신의 필생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중시로 제단 설립을 비롯하여 시조영정을 전남 지방 문화제로 만드셨습니다. 영당을 비롯한 가락당 이전 관리사 등, 당신은 불철주야 이 일을 추진하시다 그 완공을 보시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자랑스런 교육프로그램인 대학생 하계교양강좌는 올해로 23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성과 또한 결코 가엽지 않으며 오래도록 당신의 뜻을 받들어 이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장님!

누라서 당신의 숭조정신 종친사랑을 존경하지 않으리요. 당신이

그토록 어렵게 이뤄 온 종사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우리 종친 모두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마무리 못한 일들은 그 누군가로부터 당신의 뜻을 받들어 꼭 이뤄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당신은 한국화약그룹의 마지막 어른이었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당신의 일생은 7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오로지 종친 화목과 종친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한국화약과 당신이 계셨기에 종친회 운영이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돼 왔다는 사실은 전국 모든 종친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화합을 바라셨던 당신의 뜻을 이제라도 전국의 우리 종친들은 대오각성하여 분열없고 과벌없는 종친회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물흐르듯 단절없이 이어져야 하고 후손된 자 이기주의에 빠져 훌륭한 조상님의 후업들이 명예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아직도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많은 일들이 미완성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격에 맞게 가락당, 관리사 이전 동원제 정비는 남아 있는 저희 종친들에게 짐을 넘기십시오. 또한 장학재단 설립도 크고 작은 종사도 그 누군가에 의해 추진되고 완성되겠지요. 저희 종친들이 당신께 섭섭하게 하였던 그 많은 잘못됨은 이제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정성을 쏟아 이룩한 것 또한 이루고자 했던 일들 명문세족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순천김분에 당신은 반짝이는 큰 별로 남아 계시며 그 정신 또한 길이길이 이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모든 것 잊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2009년 7월 일

중앙종친회 간사장 봉환 올림



金鍾植 會長님의 별세를 哀悼하며



지난 6월 21일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는 부음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회장님에 대한 생각들이 주마등 같이 아련히 떠올라 애절함이 흘러주는 눈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벽찬 슬픔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회장님의 용안을 마음에 떠올리며 삼가 명목을 비읍니다. 이처럼 저희들 가슴에 큰 슬픔을 느끼게 함은 회장님께서 順金을 위해 가시는 날까지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계유년 10월 구테타에서 무참히 희생당하신 절재 김종서 할아버지 일문17명의 참화로 뿔뿔이 흩어져 희성이 되었고 그로인해 숨겨진 順金을 밖으로 들어내 빛을 보게 하기까지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회장님께서서는 순천김씨가 신라의 종성(宗姓)으로 왕족이요, 지금도 순천일대에서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총 할아버지를 시조로 면면히 이어져오는 위대한 가문임에도 그 위대성이 숨겨져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끝에 이 생명 다 받쳐 기필코 하리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순천김씨의 본바탕을 밖으로 드높여 종친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셨으니 고인이 되신 회장님께 다시금 머리 숙여 감사하며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회장님은 順金의 위상을 반석위에 드높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님은 가셨지만 님의 혼이 담겨있는 수많은 업적은 남아 있고 살아있습니다. 대동보 발간을 비

롯해 대학생 하계교양강좌 교육은 깊이 빛날 것입니다.

회장님께서서 2009년 신년하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친애하는 종친여러분 힘을 냅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와 인내와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여유를 가져야하고 각박한 시대일수록 사랑의 마음과 나누는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회장님 신년사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메아리쳐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 발전시키고 꽃피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가신 님의 영혼을 편히 잠들게 합니다. 「중앙종친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굳게 뭉쳐 하나 됩시다.」

이 말씀이 가신 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고 종친 모두에게 남기신 유언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상으로 준비된 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順金을 별이게 하신 님이시여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

2009년 7월

金光淵 올림

전호(60호) “순천의 성황사” 중 일부 보완(補完)

임실(任實)의 金東英(1918생) 종친의 증언에 의하면 조선조 철종(哲宗)대 (1849~1863)에 난립되는 서원(書院) 정비 시에 사원(祠院)도 정비하게 되어 여수의 성황사도 철사하게 되자 순천부에서 박난봉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추배하여 3위를 당초위회인 봉화산 하위에 성황사를 설치하여 조선조 말까지 제향하다 왜정 초에 철사하게 되었다함을 이에 보완함.

- 明在 -

추모사



먼저 회장(대부)님의 명복을 중심으로 합니다.

먼저 제가 순천김씨 종친이란걸 알게 된 것이 거슬러 올라가 제 나이 34세 (1971년) 가곡공과 族組이신 복산 대부님의 전국 순천김씨 찾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저의 가슴을 갖고 시청앞 한국화약(현재 한화) 사무실을 찾은 후부터 순천김씨 서울종친회(종호, 복산, 상준, 회정, 천연, 안성대부, 상목(노자 독자 직계손)

대부님(모두 작고)들과 시작하여 돌아가신 종철 대부(6선의원, 국민당 총재, 대통령 후보)님께서 순천김씨 서울 화수회를 이끌어 오실 때부터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서울종친회가 구성되어 채용 대부님이 회장님으로 순천김씨를 대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순천 김문에도 중앙에 종친회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직시하고 서울종친회가 중앙종친회 구성을 착수 하던 중 돌아가신 상준

대부께서 저와 인천 근희(당시 선창산업 생산계장) 진성(장터국수 사장(현재 재미)을 마포로 부르셔서 넷이 모인 가운데 중앙종친 회장을 누구를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셔서 우리 삼인은 똑 같이 어느 종친이고 대종회장은 그를 총수 같은 분이 되셔야 한다고 한국화약 그룹 회장(현 한화그룹)을 말씀드렸더니 그룹 회장님께 권유해보겠노라 하신 후 며칠 뒤에 다시 서울로 다시 우리 셋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룹 회장이 저는 아직 나이가 젊고 하니 저의 삼촌을 피시는 것이 좋다하여 삼촌께서 승낙하시면 최선을 다해 삼촌이 하시는 일 뒷 받침 하겠다니 그렇게 하자고 하셔서 저희들은 상준 대부께서 하신 말씀대로 쫓았으며, 그후 현암빌딩에서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창립총회를 성대히 거행하고 김종식 대부님을 중앙종친회 회장님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습니다. 그후 회장직을 맡으신 회장님께서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신 관계로 가문이라든가 씨족에 대한 모든 것이 생소하셔서 우리 순천김씨 원로들을 모셔다가 조언도 들으시고 중앙종친회에 대해 여러모로 잘 이끌어 가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가 가곡공과 손으로 회장님과 같은 할아버님을 피시는 터라 이때부터 회장님과 저는 바늘과 실같이 같은 생각과 노선을 걸었습니다. 재임중반에는 어느 종친의 말을 들으시며 족보 발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계파 자손들과 뜻이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 우리 순천김씨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대가 안맞는 족보다 30년이 안됐으니 부당하다 또는 족보를 핑계로 기금조성한다 하며 감사인 저에게 족보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라는 어느 종친의 말도 들은터라 회장님께 족보를 하시되 중앙종친회 기금이 마련되면 무상으로 배포하시던가 최소한의 원가만으로 종친들께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견적서가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양경공 할아버님의 종회가 구성되면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타 문중에는 대종회는 그 문중을 총괄하는 종친회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정석임에 우리 문중만이 중앙종친회가 있고 지파종친회에 양경공 대종회라는 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양경공 대종회라 굳이 붙인 것이 양경공 할아버님의 위상이 올라가 우리 할아버님을 타 문중에서 우러러 볼 것도 아닙니다. 중간계대 17대를 조작했다 하여 우리 큰할아버님(노자 독자)을 핑계로 계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선친들이 한 족보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며 족보 반대로 중앙종친회장이 큰 곤경에 처해서 많은 고충과 시련을 겪으시며 족보를 완성 배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친회장 그만 하시고 좋은 명소 찾아 좋은 공기 마시며 다정한 벗들과 정담 나누시며 여생을 보내시라 말씀드렸더니 그리하마 하시고 또 시조 할아버님 묘역 성역화 정화 사업에 착수하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내 생전에 시조 할아버님의 묘역은 완전히 성역화 하여 후세에 좋은 공적을 남기시겠다는 회장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실 길을 가셨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조 할아버님 묘소는 우리 순천김씨 가문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렇게 치산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갖자고 하시고 시조 묘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중시조 양경공 묘소는 양경공 종회에서 잘하고 있고 타 종파도 잘하고 있으니 시조 할아버님 묘소가 완성되면 우리 가곡공 할아버님 묘소도 치산도 잘하고 제례도 잘 올리자고 다짐하셨지요. 하오니 지하에서라도 우리 순천김씨 가문을 위하여 변함없이 후원하셔서 남은 저희들이 하는 일 잘 마무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번 생존해계실때 사무실에서 브라보콘 2개중 하나를 주시며 먹자 하실 때 당뇨도 있으신데 잡수시면 안되지 않느냐 여쭈었더니 이것도 대학병원 한끼 식사라 하시며 수척한 모습으로 잡수시던 것이 마지막 저와의 식사가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때 생각만해도 눈물이 납니다. 부디 저세상에서라도 못 다하신 소원 이루시고 편히 잠드십시오.

중앙종친회 감사(족손) 김경남 올림.

無恥之恥면 無恥矣니라



無恥之恥면 無恥矣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恥辱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儒敎 經典으로 重視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東方世界의 精神的인 支柱였던 四書는 大學 中庸 論語 孟子의 總稱이다.

이 四書의 하나인 孟子는 儒敎의 基本經典으로 東洋社會의 上層 支配階級인 讀書人 사이에서 必讀의 敎養書로 認定되어왔다. 孟子의 盡心章句上六章에 羞恥心의 保存에 對하여

孟子曰 人可以無恥니 無恥之恥면 無恥矣니라.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恥辱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 했다. 人間으로서 부끄러움을 갖는다는 것은 道義實現에 重要한 一面을 차지하는 것이다. 孟子는 人性을 다루면서 仁義禮智 四端의 하나로 羞惡之心은 義之端也라 했으니 羞惡之心은 곧 羞己之不善 惡人之不善이다. 自己의 不善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不善을 미워한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自己의 不義에 對한 羞恥心이다. 이 마음이 喪失되어 自己의 不道德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道德的인 進就性이 없고 多幸이 羞恥心을 保存하여 自己行動의 不道德에 깊이 反省하여 부끄러워하면 道德的인 進就性이있어 結局에는 恥辱되는 일이 없는 道德人의 完成을 볼 것이라고 孟子는 말하였다. 이같은 道義心의 培養이 바로 自己反省에서 오는 羞恥心의 保存임을 強調한 것이다. 孟子는 人間의 價値를 羞恥心에 두고 있다. 羞恥는 人間의 先天的 發露로 만약 이것이 없이 技巧와 變詐로써 秩序를 紊亂케하면 이것은 厚顏無恥한 人間以下 류이다. 孟子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두가 실천규범으로써 五倫에 違背되는 行動은 하지 않도록 自己修養에 힘을 쓸 것을 警告한 것이다. 論語 爲政篇에서도 孔子는 有恥且格 부끄러움이 있고 또한 선한 데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善의 目標인 五倫을 履行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 孟子는 五倫을 비롯한 家族秩序의 禮制를 이행하는 수양된 道德人의 養成을 敎育의 指標로 삼았다.

中央宗親會 副會長 宗末 鍾龍

이집트 그리스 터키 旅行記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일상을 벗어나 이국적인 풍물과 여행에서 마주치는 새로운 문화며 나에게 얻어지는 새로운 모티브들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대상이요 심안(心眼)이 열리기 때문이다. 8년전 네팔과 인도 여행에서 그랬듯이 동양의 원초적인 색과 실크로드에서 보았던 돈황(중국돈황)의 채색벽화들은 깊은 감동으로 내 마음의 정신적 자산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인류문명의 발상지를 찾는다. 2008년 4월 4일 화창한 봄날이다. 10박 11일 일정(레드캡투어)으로 우리 일행은 인도 여행이후 모임과 함께 여행하는 인정이 넘치는 분들이다. 부부동반으로 머나먼 신들의 나라로 장도에 오른다.

4월 4일... 아침 일찍 노포동 터미널을 출발하는 리무진 버스로 인천국제공항 만남의 장소에서 여행 가이드와 함께 오후 3시 50분 발 카이로 향발 KAL비행기를 탄다. 신화와 삶이 공존하는 나라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는 지구를 반 바퀴 돌듯 장장 13시간의 비행이다. 옛날 여행 시와는 다르다. 나이 탓일까? 그러나 이번 여행은 꼭 성공리에 결행할 각오이다. 기내에서는 항상 여행 시 제공되는 포도주도 한잔씩 마신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 호텔(Swiss Inni)에 여장을 푼다. 이곳 인구는 약 7,500만, 남한 인구의 약 2배에 가깝다. 국토는 남한의 10배, 대부분이 사막으로 국토의 5%에 해당하는 나일강 계곡하류 삼각주 일대에 집중되어 살고 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중의 하나이다.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하여 이집트인들은 세계의 어머니라 부른다. 1인당 GDP 4,200\$ (2007) 세계 20위의 석유생산량과 천연가스(세계 24위) 수에즈 운하 통관 수입, 관광 수입원으로 부존 자본보다 역대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빈부의 차이가 극심하여 소지품도 잃어버리면 보시한 것으로 생각하란다.

4월 5일... 호텔(Swiss Inni) 아침은 과일 위주로 먹는 우리 집 식단에 맞아 여행시는 항상 마음 편히 접한다. 수도 카이로를 잘 관찰해보면 이집트를 거의 알 수 있다. 다른 지방은 대부분 사막이기 때문이다. 카이로는 교외 인구와 합쳐 1,900만 명을 헤아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버스를 타고 가다 도심내를 내려다보면 낡은 건물과 대부분 짓다가 만 외장이 안된 집들, 2층 기둥만 올려놓고 하층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세금이 나오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란. 날씨는 덥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에서 이슬람 시대를 거쳐 오랜 역사를 가진 이곳 카이로는 무질서하게 뒤엉킨 자유로운 거리는 교통신호기보다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란. 항상 더운 날씨 탓일까? 어쩌면 순박하고 바쁘지 않는 삶, 그것이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여름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다. 때로는 사막의 먼지와 공해, 400개가 넘는 회교사원, 하루 5번의 기도예배의 확성기 소리 그 기나긴 음울의 가락은 목장의 어미 소가 송아지를 찾듯 길게만 들린다. 거친 황무지 같은 저 사막위에 3기의 나란히 선 피라미드를 보니 여기가 이집트인 것을 실감한다. 전용버스로 세계 7대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피라미드에 도착한다. 기원전 332년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침공, 포톨레미이오스 왕조의 지배이후 고대 이집트 역사는 31왕조가 지속되고 154명의 피라오가 약 3천년의 역사를 통치했다. 고왕국 시대부터 피라미드가 건설되고 왕들은 파라오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일강은 천혜의 수로다. 지금은 여러 나라들을 거치면서 댐과 수리시설로 농작물을 재배하지만 옛날에는 연중 행사처럼 나일강이 범람했다. 물이 범람한 후에 검은 땅에는 비료 없이도 작물이 잘 재배되는 비옥한 땅이 된다. 그래서 한해를 범람기, 파종기, 추수기로 나누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쬐어 가뭄이 오면 흉년이 들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또 흉년이 오고 태양과 나일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풍년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현상들은 초월적 존재의 힘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그리고 매년 생명이 가져다주는 나일강처럼 이집트인들은 인간도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다. 이러한 우주관의 인식 속에 신을 모시는 신관은 파라오 다음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미라와 왕의 무덤을 비롯한 장례 예술과 건축이 인류 역사상 화려하게 꽃 피웠다. 그리하여 파라오와 신관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국왕의 묘다. 정방형 사각으로 기원전 3100년경 만들어져 내부에는 국왕의 미라를 안치하는 석곽이 있다. 여기, 피라미드 3기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왕의 무덤이란. 주위에는 왕족의 무덤인 작은 피라미드가 여기저기 보인다. �핑크스가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다. 사자의 몸에 가슴과 얼굴만 여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리스의 �핑크스와는 달리 이집트의 �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파라오의 형상을 한 �핑크스며 다른 동물의 얼굴도 올라있는 다양한 모양이 존재한다. 지금의 꺾박한 이집트와 고대의 찬란했던 이집트의 두 얼굴을 더듬어 볼 수 있다. 언어는 희랍어이다.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으로 이동 투탄카멘의 황금마스크를 본다. 제62호 고분에서 1922년에 발굴되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 작업을 주관한 영국인 하워드 카터도 이집트 유물발굴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지금도 이집트의 유물 발굴은 계속되고 있다. 투탄카멘은(기원전 1370-1352) 어린나이 9세에 파라오에 올라 즉위하고 수도를 아마르나에서 테베로 옮기는 등 국가에 많은 공을 세운다. 18세의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미라로 만들어져 테베의 서쪽 교외인 왕의 계곡에 장례를 하게 된다. 이것 역시 영국인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굴되었다. 올드 카이로로 이동한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고대 이집트가 낯선 나라인 것만은 아니다. 성경에서 애굽으로 기록된 곳이 바로 이집트이고 왕이라고 불리던 인물들이 바로 파라오들이다. 신약성경에서 이집트는 헤롯왕의 유아 살해를 피해 성모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한다. 예수피난교회와 모세 기념교회는 오직 신앙하나만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인간이 살았는지 인간의 끈질긴 생명력과 꺾박받은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나일강변에 띄어진 크루즈 선상에서의 올리브유에 튀긴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도 된다. 벨리댄스처럼 관광객에게 선사하는 간단한 이곳 민속춤이다.

탄두라 공원으로 간다. 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시풍경은 여기 저기 높이 솟은 모스크와 회색빛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넓게 펼쳐진다. 공원으로 오르내리면 나무들은 모두 뿌리 주위를 파서 비가 올 때 한방울 물도 뿌리 쪽으로 흐르게 해 가지마다 힘 없이 처져 비오기를 기다린다. 밤이 새도록 꿩과리 치는 소리 때문에 지난밤에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한국의 민속 사물놀이패처럼 아침이 되어서야 조용해진다. 날이 새어 들어보니 이집트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밤에 거행한다고 들려준다. 아마도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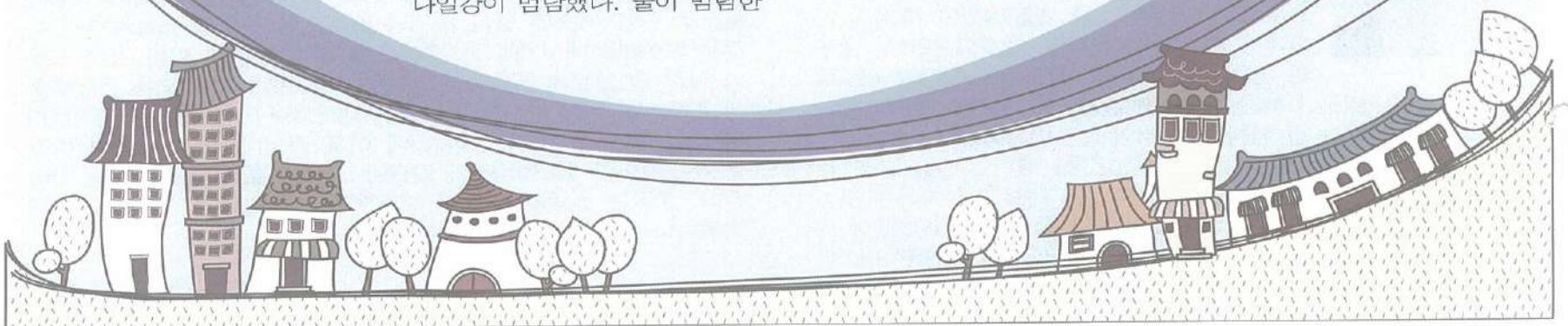
탄두라 공원으로 간다. 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시풍경은 여기 저기 높이 솟은 모스크와 회색빛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넓게 펼쳐진다. 공원으로 오르내리면 나무들은 모두 뿌리 주위를 파서 비가 올 때 한방울 물도 뿌리 쪽으로 흐르게 해 가지마다 힘 없이 처져 비오기를 기다린다. 밤이 새도록 꿩과리 치는 소리 때문에 지난밤에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한국의 민속 사물놀이패처럼 아침이 되어서야 조용해진다. 날이 새어 들어보니 이집트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밤에 거행한다고 들려준다. 아마도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탄두라 공원으로 간다. 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시풍경은 여기 저기 높이 솟은 모스크와 회색빛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넓게 펼쳐진다. 공원으로 오르내리면 나무들은 모두 뿌리 주위를 파서 비가 올 때 한방울 물도 뿌리 쪽으로 흐르게 해 가지마다 힘 없이 처져 비오기를 기다린다. 밤이 새도록 꿩과리 치는 소리 때문에 지난밤에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한국의 민속 사물놀이패처럼 아침이 되어서야 조용해진다. 날이 새어 들어보니 이집트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밤에 거행한다고 들려준다. 아마도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탄두라 공원으로 간다. 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시풍경은 여기 저기 높이 솟은 모스크와 회색빛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넓게 펼쳐진다. 공원으로 오르내리면 나무들은 모두 뿌리 주위를 파서 비가 올 때 한방울 물도 뿌리 쪽으로 흐르게 해 가지마다 힘 없이 처져 비오기를 기다린다. 밤이 새도록 꿩과리 치는 소리 때문에 지난밤에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한국의 민속 사물놀이패처럼 아침이 되어서야 조용해진다. 날이 새어 들어보니 이집트는 결혼식과 장례식을 밤에 거행한다고 들려준다. 아마도 낮에는 더위를 피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順天金氏 釜山宗親會 諮問委員
西洋畫家 金吉淵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9년 5월 1일부터 ~ 2009년 7월 30일까지

대 의 원

1. 김애연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2. 김동원 2009. 6. 2 경기도 파주시
3. 김동선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4. 김대석 2009. 6. 1 충청남도 보령시
5. 김상윤 2009. 6. 1 전라남도 해남군
6. 김석연 2009. 6. 10 경기도 안산시
7. 김상윤 2009. 6. 10 전라북도 완주군
8. 김낙희 2009. 6. 17 부산광역시 남구
9. 김우복 2009. 6. 26 경상북도 의성군

이 사

1. 김재준 2009. 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문

1. 김동학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2. 김상응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3. 김서연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4. 김동욱 2009. 6. 2 경기도 고양시
5. 김인환 2009. 5. 29 충청남도 금산군
6. 김상석 2009. 6. 1 경기도 광주시
7. 김도균 2009. 6. 4 강원도 원주시
8. 김상우 2009. 6. 5 경기도 용인시
9. 김상범 2009. 6.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외 원

1. 김창환 2009. 4. 22 충청남도 보령시
2. 김종석 2009. 4. 30 충청남도 부여군
3. 김지탁 2009. 4. 30 경상북도 문경시
4. 김천수 2009. 5. 13 경기도 구리시
5. 김윤근 2009. 5. 28 충청남도 예산군
6. 김상휴 2009. 6. 1 경기도 안양시
7. 김양정 2009. 6. 1 인천광역시 연수구
8. 김동식 2009. 6. 1 충청남도 금산읍
9. 김한희 2009. 6. 1 경기도 과천시
10. 김창열(렬) 2009. 6. 1 경기도 용인시
11. 김양춘 2009. 6. 1 부산광역시 남구
12. 김동경 2009. 6. 1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김동수 2009. 6. 1 경상북도 구미시
14. 김지연 2009. 6. 1 경상북도 안동시
15. 김인흠 2009. 6. 1 경상북도 영주시
16. 김병도 2009. 6. 2 인천광역시 서구
17. 김덕흠 2009. 6. 2 경기도 의정부시
18. 김기혁 2009. 6. 2 경기도 수원시
19. 김동식 2009. 6. 2 서울특별시 광진구
20. 김갑연 2009. 6. 1 전라북도 진안군
21. 김인성 2009. 6. 2 경기도 의정부시
22. 김동철 2009. 6. 2 대구광역시 북구
23. 김재석 2009. 6. 3 경기도 수원시
24. 김교열 2009. 6. 3 서울특별시 종랑구
25. 김명환 2009. 6. 2 충청남도 부여군
26. 김외학 2009. 6. 3 대구광역시 동구
27. 김성희 2009. 6. 4 경기도 파주시
28. 김창수 2009. 6. 4 광주광역시 동구
29. 김일재 2009. 6. 5 경기도 이천시
30. 김상천 2009. 6. 4 경기도 안성시
31. 김동수 2009. 6. 4 경상북도 안동시
32. 김종탁 2009. 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33. 김동원 2009. 6. 8 서울특별시 도봉구
34. 김병남 2009. 6. 8 경기도 김포시
35. 김이승 2009. 6. 8 경기도 의왕시
36. 김동현 2009. 6. 8 경기도 시흥시
37. 김인식 2009. 6. 8 경기도 용인시
38. 김필수 2009. 6. 8 인천광역시 강화군
39. 김대섭 2009. 6. 8 대구광역시 달서구
40. 김상하 2009. 6. 9 경기도 평택시
41. 김승희 2009. 6. 9 서울특별시 성북구
42. 김인호 2009. 6. 9 부산광역시 북구
43. 김승환 2009. 6. 8 경상북도 상주시
44. 김만형 2009. 6.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5. 김병욱 2009. 6.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46. 김준희 2009. 6. 8 전라북도 임실군
47. 김인환 2009. 6. 10 대구광역시 남구
48. 김형호 2009. 6. 11 경기도 안산시
49. 김천연 2009. 6. 10 울산광역시 중구
50. 김종철 2009. 6. 9 전라남도 여수시

51. 김명남 2009. 6. 12 충청남도 공주시
52. 김옥계 2009. 6. 10 경상남도 하동군
53. 김명환 2009. 6.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54. 김상호 2009. 6. 15 경상북도 포항시
55. 김한용 2009. 6. 17 경기도 수원시
56. 김기현 2009. 6. 18 광주광역시 북구
57. 김길원 2009. 6. 18 충청남도 서산시
58. 김익희 2009. 6.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59. 김근모 2009. 6. 19 전라남도 여수시
60. 김구연 2009. 6.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61. 김동삼 2009. 6. 24 경기도 하남시
62. 김달용 2009. 6. 24 경상북도 상주시
63. 김영락(낙) 2009. 6. 24 울산광역시 남구
64. 김호철 2009. 6. 25 서울특별시 도봉구
65. 김동일 2009. 6. 26 경기도 시흥시
66. 김성도 2009. 6. 26 경상남도 마산시
67. 김영일 2009. 6. 26 전라북도 정읍시
68. 김원석 2009. 6. 29 광주광역시 북구
69. 김태현 2009. 6. 29 전라남도 해남군
70. 김강영 2009. 6. 30 경상북도 문경시
71. 김태희 2009. 6. 30 전라남도 순천시
72. 김원백 2009. 7. 2 경기도 광명시
73. 김연만 2009. 7. 2 충청북도 청원군
74. 김동직 2009. 7. 6 서울특별시 양천구
75. 김종두 2009. 7. 6 전라남도 여수시
76. 김공원 2009. 7. 7 광주광역시 서구
77. 김동석 2009. 7. 13 경상북도 성주군

무 명 인

1. 2009년 6월 1일 하나은행/개포동지점
2. 2009년 6월 1일 새마을금고/대광지점
3. 2009년 6월 2일 일산농협/산들지점
4. 2009년 6월 3일 농협/이천관고지점
5. 2009년 6월 10일 우체국/청천우체국
6. 2009년 6월 15일 한국씨티은행/도곡동지점
7. 2009년 6월 19일 농협/의성북부

Great Challenge

위대한 도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